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 '타이팩스-아누가 2026' 국내기업 부스 전경. (왼쪽부터) 롯데푸드, 삼양식품, 대상, 남양유업.

식품기업, 웰니스·할랄 등 차별화... 'K-푸드 2.0'시대 연다

타이팩스-아누가 2026

롯데푸드 서정호 대표 현장경영
삼양식품 연구소 콘셉트 부스 운영
대상 동남아 주요 바이어 수출 상담
남양유업 테이크아웃 등 제품 소개

국내 대표 식품 기업들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 대거 참가해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롯데푸드, 삼양식품, 대상, 남양유업은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무역박람회 '타이팩스-아누가 2026(T-HAIFEX-Anuga Asia 2026, 이하 타이팩스)'에 참가해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타이팩스 박람회는 전 세계 56~60개국에서 3300~3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40여 개국에서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 및 바이어가 찾으며 전 세계 식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 됐다.

이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롯데푸드는 국내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 수준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오른쪽)과 서정호 롯데푸드 대표이사(왼쪽)가 타닛 치라바는 CP Axtra Wholesale 사업 부문 그룹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푸드

인 14개 부스(126m²)를 꾸미고 서정호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글로벌 영업을 진두지휘했다.

롯데푸드 부스는 핵심 브랜드인 '빼빼로'를 필두로 가나, 자일리톨, ZERO, 티코, 빵빼레, 쉐푸드 냉동 삼각김밥 등 20여 가지 브랜드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벌 앰배서더인 '스트레이 키즈'를 내세운 빼빼로 포도준과 무설탕 브랜드 'ZERO'는 웰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

기간 중 태국 제1위 CP 그룹의 핵심 유통사인 'CP엑스트라(CP Axtra)'의 타닛 치라바는 Wholesale 사업 부문 그룹 대표가 롯데푸드 부스를 찾아 신유열 실장과 인사를 나누며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삼양 크레이브 랩(SAMY ANG CRAVE LAB)' 콘셉트의 체험형 부스를 운영해 5일간 누적 방문객 약 4만 8000명을 끌어모았다. 불닭, 맵(MEP), 탱글(Tangle) 등 주요 브랜드를 독립된 연구소(LAB) 형태로 구성해 대표 제품 시식과 함께 디지털 스탬프 미션, 한정 굿즈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람회 기간 중 아누딘 천위라꾼 태국 총리가 삼양식품 부스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대상은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food)', 인도네시아 현지 브랜드 '마마스카(Mamasuka)'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1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태국 최대 유통사인 'CP 엑스트라'의 마크로와 로터스를 비롯해 박씨, 탐스 등 동남아 주요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현지 식문화를 반영해 베트남 공장 생산 맛김치를 활용한 '맛김치 해산물 샐러드'와 '오푸드 컵 떡볶이' 등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할랄 인증을 획득한 마마스카의 '고추장 페이스트'는 박람회 내 혁신 제품 쇼케이스인 'New to Market Street'에 선정되며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상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2030년 동남아시아 법인 합산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2025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남양유업도 이번 박람회에서 단백질 음료·커피·RTD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아웃 맥스'와 '테이크아웃 몬스터'를 중심으로 프렌차이즈, 루카스나인, 아이엠마더, 초코에몽 등 대표 라인업을 선보였다. 현재 홍콩, 몽골, 카자흐스탄 등 현지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 중인 테이크아웃은 최근 태국 현지 그룹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1%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타이팩스에서 확인된 국내 식품업계의 성과는 단순한 '한류 열풍'에 기댄 일시적 유행을 넘어, 현지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K-푸드 2.0)'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과정 중심의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거대 유통망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할랄 인증 및 웰니스(무설탕·고단백) 등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수도권 등 청약시장 활기... 3만가구 분양 대기

이달 분양물량 전년 두 배 이상 전망
서울, 장위·신길·노량진 등 신규공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지가 청약에 나서면서 이달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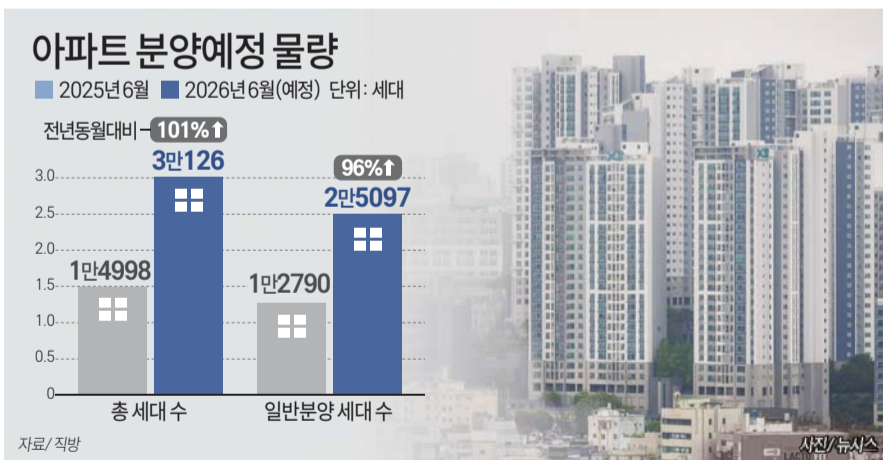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3만 126세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 4998세대) 대비 101% 증가했다.

일반분양 역시 2만 5097세대로 전년 동월(1만 2790세대)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모습"이라며 "신축 공급 감소 우려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향후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 9524세대로 전체 물량의 65%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 1931세대(812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드와인아르티아(404세대)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스클래스라비에르



(355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 자이더포레(1517세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지구하우스토리(A2)(1464세대) ▲고양시 덕양구 고양장릉S3(1306세대)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펠리스 타워양우내안에(1252세대) 등 대단지가 줄줄이 공급된다.

지방 공급은 경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1만 602세대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 단지에서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 수요는 지역 구분보다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 생활 인프라, 배후수요 등을 갖춘 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당분간도 경쟁력을 확보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경남에서는 ▲김해신문센트럴아파트(1379세대)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1307세대) ▲밀양수자인더퍼스트1·2단지(총 1066세대) 등이, 충남 아산시에서는 천안아산역그랑시티팔하우스1BL(1534세대)이 분양 예정이다.

다만 분양 예정물량 대비 실제 공급은 제한적일 수 있다. 지난달 예정 물량은 총 1만 9278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실적은 1만 2542세대로 약 65% 수준에 그쳤다. 일반분양 역시 예정 물량 역시 1만 5495세대 가운데 절반 수준인 8284세대만 공급됐다. /안성이 기자 smahn1@metro



metro

구윤철 "재정부 중심 혁신·구조개혁 준비"

구 부총리, 확대간부회의 주제
"경제 대도약 골든타임 잡아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사진)은 현 시점이 바로 경제 도약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적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일 세종재정부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계기로, 재경부가 혁신·구조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6월 이후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을 반등의 기반을 마련할 경제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경제과제 중 하나로 경제성장을 제고를 내걸고 있다. 재경부는 조만간 공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성장전략'에서 규제혁신, 산업구조개편,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1, 2차관과 각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을 반등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구조개혁 추진방향과 부내 업무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재정부의 AI(인공지능) 활용 확대 의지도 재치 드러났다. 회의에서는 최근 실시한

제2기 AI 단기집중반 교육수요자들의 프로젝트 3건이 시연됐다.

구 부총리는 "부내 AI 혁신 노력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부 특화 AI 에이전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간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급·고급 AI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68회 신규 사무관 임명식을 비롯해, 팀워크를 발휘해 뛰어난 정책 성과를 보인 부서에 대한 '팀화행' 포상, 일상 업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직원을 격려하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도 진행됐다.

부처 내 팀화행 포상 부서로는 부동산·상속·증여 세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한 재산세제과와 경제분석과, 혁신정책담당관, 공공정책총괄과, 경제협력과 등 5개 부서가 선정됐다.

혁신정책담당관은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혁신 역량 강화를 인정 받았다. 또 공공정책총괄과는 해외사무소 협업 플랫폼인 'K-마루' 프로젝트 추진, 경제협력과는 아시아개발은행(A DB) 연차총회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성과에 대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metro